



무소속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25일 무소속 강운태(왼쪽) 후보와 이용섭 후보가 각각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두 후보 지지층에만 적합도 조사

(무응답층 포함)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관전 포인트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25일과 26일 이틀간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함에 따라 6·4 광주시장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르면 25일 저녁, 늦어도 26일 오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단일후보 발표시점은 26일 또는 27일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전례없는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두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가 시작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력 있는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어떻게 조사하나=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 2곳(미디어리서치, 서울리서치)에 의뢰해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여론조사 기관 1곳당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ARS조사방식이 아닌 집 전화를 통한 면접조사로 실시된다.

설문내용은 윤장현 후보 측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광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지지여부를 묻은 뒤 강운태·이용섭 두 후보의 지지자와 무응답층만을 대상으로 다시 단일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단일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경쟁할 후보로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한가'이다.

◇姜-李 선거운동 '총력'=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되면서 강운태, 이용섭 후보 측은 '내가 적인자'라며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자신으로의 단일화 당위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조직과 지인 등을 총동원해

■어떻게 조사하나

2곳서 1100명씩 집전화로

조사결과 오늘·내일중 발표

■서로 다른 선거운동

姜 "이길수 있는 후보를"

李 "기득권 버린 나에게"

■'역선택' 방지는...

지지율 엮지락 뒤치락

尹측 쉬운 후보 고르기 고심

지지세를 확대하는 등 막판 단일화 승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후보는 "본선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인 강운태를 지지해달라"면서 "광주의 중단을 발전에 이루고 시민을 모독한 낙하산 밀실야합공천을 심판해 광주의 자존심을 되찾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도 "시민들의 지지율이 높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이용섭으로 단일화되어야 광주시민을 무시한 김한길·안철수의 낙하산 공천을 심판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낙하산 공천으로 훼손된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 원직 사퇴 등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 들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 후보는 차량 이동시간과 선거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 지인들과의 직접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한

편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대학교 앞 등에서 거리유세를 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국회의원직 사퇴 등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 후보는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기간인 25~26일 이틀간 '48시간 철야 민심투어'를 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틀동안 차량 이동중 '쪽 잡'을 청하면서 심야에는 영화관과 점점방, 포장마차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오전과 오후에는 출근길 인사와 거리 유세를 통해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이 선호하는 후보는=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측은 두 후보 단일화 결과에 따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만큼 단일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후보로 단일화가 되느냐에 따라 남은 선거운동기간 선거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두 후보의 단일화 합의 이후 누가 덜 버거운 상대인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두 후보 간 지지율은 엮지락 뒤치락하고 있어 더 혼란스럽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 모두 경륜과 능력에서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고, 각각 시장과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인 물에 대한 검증도 끝난 상황이라 단일화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통해 고표와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고,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선호하고 있는 게 강점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두 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장치를 마련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윤 후보 측이 '쉬운 후보 고르기'를 위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단일화 바람 막아라

안철수·박영선·권노갑 새정치 지도부 광주 총출동 윤장현 후보 지원유세

새정치연합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따른 후폭풍을 차단하고, 강운태·이용섭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주에도 박영선 원내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등 당 지도부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 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따르면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7일과 18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일주일 만인 14일 또 다시 광주를 찾아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안 대표가 일주일 사이 두 차례 광주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략공천에 대한 광주 민심을 달래고 전략공천 후폭

풍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 대표에 이어 26일에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윤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일 예정이며, 27일에는 '동교동계' 좌장적인 권노갑 상임고문도 광주를 찾아 윤 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박 원내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장현 후보를 통해 광주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2일에는 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이 광주를 찾아 광주 시내 곳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이는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윤장현 후보' 지원 유세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광주시장 선거에 총력을 펼치고 나선 것은 전

략공천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뜨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 단일 후보에게 패할 경우 안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부상하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광주 지원 유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31일과 6월1일 사이 한 차례 더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주 강운태·이용섭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 결과가 발표되고, 단일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이들의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당 지도부의 잇따른 광주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는 25일 오후 광주 YMCA에서 '민선 6기 시·도 공동정책 협약식'을 갖고 시장·도지사로 당선되면 광주·전남 공동발전과 상생을 위한 공동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

윤장현-이낙연 후보 광주·전남 공동정책 협약

신영산강 시대·제2 남도학숙 건립 등 공동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공동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25일 오후 광주 YMCA에서 '민선 6기 시·도 공동정책 협약식'을 갖고 광주·전남이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협약했다.

두 후보는 협약식에서 ▲'신(新) 영산강시대' 상생발전 정책 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 관광 활성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윤 후보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차원에서 중앙당 등에서 이

낙연 후보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후보 측은 공동 논평을 내고 "윤장현 후보는 낙하산공천에 대한 시민분노가 여전한데도 마치 광주시장에 당선된 것처럼 정책 공조 운운하는 모양새를 보면 윤 후보를 감싸고 도는 안철수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여론조사나 TV 토론에서 검증됐듯이 윤 후보가 광주시장 후보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협약식은 윤 후보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차원에서 중앙당 등에서 이

낙연 후보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후보 측은 공동 논평을 내고 "윤장현 후보는 낙하산공천에 대한 시민분노가 여전한데도 마치 광주시장에 당선된 것처럼 정책 공조 운운하는 모양새를 보면 윤 후보를 감싸고 도는 안철수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여론조사나 TV 토론에서 검증됐듯이 윤 후보가 광주시장 후보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사계절 아름다운 명품전원도시 화순

건강하고 살기좋은 화순으로 오세요

화순군 www.hwasun.go.kr
전라남도 화순읍 흥천길 23 T.061)374-0001

화순농어촌뉴타운 집중햇살마을